休 2

기록으로 보는 국내 인기 외국 번안곡들

글.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본부장)

번안곡은 국경, 민족, 이념, 종교 뛰어넘는 소리문화
우리나라 최초 번안곡은 윤심덕 '사(死)의 찬미'

요즘을 '지구촌시대'라고 한다. 세계가 한 마을과 같다는 얘기다. 나라 사이의 국경만 있을 뿐 사람들 삶엔 울타리가 없다는 말과도 통한다. 문화, 그 중에서도 음악이 그렇다. 소리문화인 음악은 국경을 넘나들며 시대를 가리지 않고 듣고 불린다. 민족, 지역고유의 음악이 있긴 하나 듣기 좋고 부르기 쉬우며 해당국가 사람들에게 먹히면 노랫말이 번역돼 불린다. 민족, 이념, 종교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번안곡'은 외국노래 가사를 자기나라 말로 번역하거나 바꾼 곡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도 음악의 한 장르를 차지할 만큼 번안곡이 많이 불리며 뿌리내리고 있다. 기록으로 보는 국내 인기 번안곡들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짚어본다.


死의 讚美」를 最後로
弟子의 往生을
八十八所
01 윤심덕 관련 신문기사 《매일신보》 1926. 8. 7.

우리나라 번안곡 역사는 긴 편이 아니다. 대중가요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해 90년 남짓 된다. 국내 최초 번안곡은 김우진이 작사하고 1926년 윤심덕이 부른 '사(死)의 찬미'다. 우리나라 대중음악 1호이기도 한 이 노래는 그때로선 보기 드물게 일본유학까지 한 음악엘리트 윤심덕이 취입, 눈길을 모았다. 이 노래는 루마니아 작곡가 이바노비치(1845년 출생)의 유명한 왈츠곡 '다뉴브 강의 잔물결' 멜로디에 허무와 염세로 가득한 노랫말을 붙여 음반으로 취입됐다. 유성기음반은 그해 8월 발매됐다.

윤심덕은 이 노래를 일본 오사카에서 녹음한 뒤 애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귀국길의 부관페리호 갑판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 한 밤중 바다(한일해협)에 몸을 던져 함께 자살한 스캔들로 조선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다. 두 사람의 동반자살은 그 무렵 봉건적 사회분위기에선 충격적이었다. 자유연애관을 내세웠던 신여성, 가정이 있는 일본 와세다대학(영문과) 엘리트가 죽음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한 것이어서 더욱 그랬다. 그런 결단을 암시하는 듯한 '사의 찬미'의 비극적 내용의 가사는 일제강점기 때 암울했던 우리겨레의 마음을 극적으로 달아오르게 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동반자살 이틀 뒤 윤심덕이 사고 직전 오사카 닛토(日東)레코드에서 27곡을 녹음한 사실이 알려졌다. 원래 계약은 26곡을 녹음하는 것이었지만 윤심덕은 '다뉴브 강의 잔물결'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노래 한 곡을 더 녹음하자고 제안, 그의 동생 윤성덕이 피아노로 반주한 그 노래가 바로 '사의 찬미'다. 노스웨스턴대학 음악과를 졸업한 윤성덕은 1928년 귀국, 모교인 이화여전(현재 이화여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사의 찬미'가 담긴 윤심덕의 유고음반은 사고 1주일 뒤부터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과 조선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발매됐다. '사의 찬미'는 일본서 발매된 첫 조선어노래다. 정사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사의 찬미'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 이 노래는 '하얀 나비'를 부른 김정호도 리메이크해 취입했다. 전명신의 국악버전도 있다. 1991년 '사의 찬미'(감독 김호선) 영화도 만들어졌다. 장미희 주연의 이 영화는 비련의 여인 윤심덕을 그린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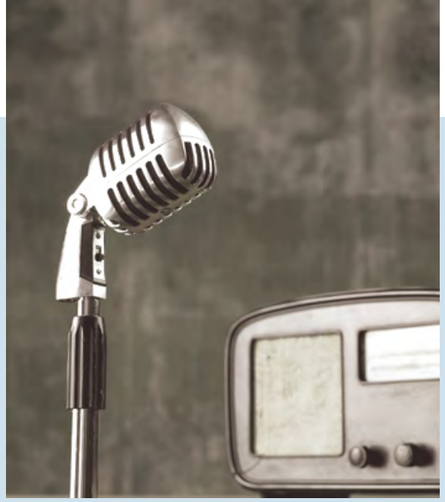
우리말 번안 첫 캐럴송, '싼타크로쓰'

번안곡들 중엔 우리말로 된 외국캐럴송과 찬송가도 있다. 우리말로 된 첫 캐럴송은 윤심덕이 부른 '싼타크로쓰'다. 이 노래는 1926년 10월 닛토레코드가 만든 국내 최초 번안캐럴송이다. 창작곡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유성기음반 뒷면에 실린 '싼타루치아'나 이 음반보다 앞서 나온 '사의 찬미' 등을 미뤄볼 때 외국캐럴송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윤심덕 이후 번안캐럴송 기록이 없다가 1934년 12월 '요한'이란 세례명을 쓴 가수에 의해 이어졌다. 캐럴송이 대중들에게 본격 불린 건 1945년 해방 후 미군들이 갖고 온 빙 크스로 비 같은 외국팝가수들 캐럴음반을 통해서다.

찬송가음반은 캐럴송보다 1년 앞선 1925년 10월 가수 안기영에 의해 처음 선보였다. 1935년 8월엔 '고향생각' 등을 작곡한 현제명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콜롬비아레코드사를 통해 발표된 기록이 있다. 1971년 4월 발매된 선우성의 '샹제리제'는 파리에 대한 최초 번안곡으로 기록된다.

국내 유명가수들도 번안곡을 취입하거나 무대에서 자주 불렀다. 패티김은 그가 만든 번안곡 '틸', '파드레'가 담긴 첫 독집음

기록으로 보는 국내 인기 외국 번안곡들



반을 내며 이름을 알렸다. 노래그룹으론 7080음악밴드인 트윈폴리오, 뚜아 에 모아, 라나에로스포 등이 아름다운 번안곡들을 발표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줬다. 트윈폴리오는 오빠부대 원조로도 꼽힌다.

우리나라 통기타음악은 번안곡이나 팝송을 부르는 것에서 출발됐다. 조영남, 송창식, 이장희 등 통기타가수 1세대는 처음엔 자기노래가 없어 번안곡, 팝송, 가곡, 구전가요를 불렀다. 우리나라 포크의 첫 음반이라 불리는 '트윈폴리오'앨범이 번안곡 모음이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번안곡은 우리 가요사에서 빼놓을 없는 시대의 한 장르를 차지한다.

특히 1960, 1970년대 음악다방 세시봉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주되던 곡 상당수는 팝 번안곡이었다. 정식데뷔전 아마추어가수들이 대부분으로 세시봉이 인기를 얻으면서 원곡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세시봉의 주축이었던 조영남이 그곳에서 많이 불렸던 팝 42곡을 추천한 2장의 컴필레이션CD를 '추억의 뮤직싸롱'이란 이름으로 2011년 3월 내놨다. 조영남이 부른 '내 생에 단 한번만'의 원곡 'Magia', '제비'의 원곡 'La Golondrina', '우울한 일요일' 원곡 'Sombre Dimanche' 등이 실렸다. 'Magia'는 국내서 CD로 발매되긴 처음이다.

송창식과 윤형주가 짝을 이룬 트윈폴리오 노래도 여럿이다. '당신을 만나던 날' 원곡인 에벌리 브라더스의 'Let It Be Me', '빗속을 울며' 원곡 'Crying In The Rain', '케세라' 원곡이었던 호세 펠리치아노의 'Que Sera', '잃어버린 사랑' 원곡 'Lost Love'(바비 다린) 등이 돋보였다. 트윈폴리오와 함께 포크삼총사를 이룬 김세환의 '내 사랑 코리나' 원곡 'Corina, Corina'(레이 피터슨), '무뚝뚝한 사나이' 원곡 'Stoney'(로보), '눈물의 왈츠' 원곡 'I Went to Your Wedding'(패티 페이지) 등도 다시 들을 수 있다. 이용복, 펄 시스터즈, 뚜아 에 무아 등의 번안곡도 실렸다. 이현이 부른 '아름다운 일요일'의 원곡 'Beautiful Sunday', 이용복의 대표곡 '어린 시절'의 오리지널 노래 'Playgraound in My Mind'(클린트 홈스)를 비롯해 국내에서 음반이 제대로 발매되지 않았던 질리올라 칭게티, 카테리나 발렌테, 매트 몬로, 다미아, 마씨모 라니에리 등 귀에 익은 히트곡들이 지난날 추억을 되살려준다.

최근 개봉된 영화 '쎄시봉'에서도 번안곡이 흘러나와 눈길을 끈다. 바로 '백일몽'이다. 영화제작비의 10%에 이르는 음악저작권료(6억원) 지불에서 유일하게 속하지 않는 노래다. 특별 영화 주제가(OST)로 흘러나오는 '백일몽'은 1876년 헨리 클레이 워크(Henry Clay Work)가 작곡한 미국민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에 김현석 감독이 가사를 붙인 곡이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사랑하는 마음', '담배가게 아가씨', '웨딩케이크' 등 원조 '쎄시봉'음악인들 노래나 팝송을 리메이크한 다른 OST들과는 달리 영화 '쎄시봉'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백일몽'은 '쎄시봉'에서 오근태(정우 분), 윤형주(강하늘 분), 송창식(조복래 분)이 '트리오 쎄시봉' 멤버로 함께 노래하게 되면서 처음 호흡을 맞춘 곡이다. 우정을 쌓아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는 곡이기도 하다. '백일몽' 스페셜 OST는 '쎄시봉'을 보던 중 노래를 듣고 감명 받은 윤형주가 제작진에게 "음원을 만들자"고 제안해 지난 2월 17일 디지털음원으로 발매됐다. 공개된 '백일몽'은 많은 포크명곡을 만든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의 완벽한 하모니로 이뤄져 귀를 사로잡는다. 감미로운 화음에 극중에서 티격태격하던 세 친구가 '트리오 쎄시봉'으로 거듭나며 어우러지는 장면이 재미를 더해준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번안곡은 가요계에서 빠지지 않는다. 2000년에 선보인 진주의 '난 괜찮아'는 Gloria Gaynor의 'I Will Survive'가, 엠씨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은 엑스 재팬의 티어스 노래가, 장나라의 'Sweet Dream'도 외국곡이 원곡이다. 박진영이 작사한 '그대 날 떠난 후로'는 Bill Withers의 'Ain't No Sunshine' 곡을 인용해 작곡된 번안곡이다.

정재욱이 2006년 내놓은 '가만히 눈을 감고'는 일본인 히라이켄(平井堅)이 부른 '눈을 감고서'(瞳をとじて)가 원곡이다.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OST로 정재욱이 인지도를 높인 곡이다. 지현우가 속한 노래그룹 더 넛츠의 명곡인 '사랑의 바보'(2004년)도 번안곡이다. 박효신의 '눈의 꽃'(2004년)은 나카시마 미카(Nakashima Mika)의 '눈의 꽃(雪の華)'이, 강현수(V.One)의 '그런가 봐요'(2003년)는 Southern All Stars의 쓰나미(Tsunami)가,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1987년)는 AI Stewart의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이 원곡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불리는 번안곡과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 흥미롭다. 바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1991년)이다. 이 곡은 외국에서 각 나라말로 번역돼 불리는 곡으로 유명하다. Lee Oskar, Teddy Andreas가 부른 'My Love beside me'가 단적인 사례다. 우리나라 가요수준과 저변의 힘을 말해준다. 국내에서 취입된 번안가요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줄잡아 300곡 이상 된다.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잡는 아버지와 철모르는 딸있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아 목동아', '등대지기' 등은 음악교과서에도 실려

번안곡들 중엔 우리나라 음악교과서에까지 실리며 알려진 게 적잖다. '클레멘타인', '아 목동아', '등대지기' 등이 대표적이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로 익숙한 미국민요 '클레멘타인'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일확천금을 꿈꾸며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몰려왔던 '포티 나이너(forty-niner)'들이 만든 것이다. 이 노래는 미국의 골드러시 때 어린 딸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온 한 사내가 잃어버린 딸을 그리는 추모곡에 가깝다. 협곡의 동굴에 살면서 금맥을 찾고 있었던 그는 어느 날 딸이 계곡에 떨어져 거센 강물에 휩쓸려 사라져버리자 딸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다. '클레멘타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건 3·1운동 직후였다. 대구출신 작곡가 박태준의 형 박태원이 원래 가사를 한국인 정서에 맞게 번안했다. 많이 불린 때는 해방 후부터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척박한 시

절 어느새 우리들의 클레멘타인이 돼 가슴 언저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은희가 부른 '등대지기'는 단조로운 음정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번안곡이다. 등대근무자들을 소재로 한 노래로 4분의 3박자 왈츠 풍으로 나가 부르기가 쉽다. 악보와 함께 밝혀진 원곡은 1864년께부터 미국에서 발간된 음악교본 속의 찬송가 'The Golden Rule'이다. 제목은 등대지기를 직역한 'Lighthouse Keeper'. 작곡자는 Richard Storrs Willis란 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작사자는 여러 자료를 통해 I. J. Zimmerman으로 확인됐으나 미국의 어느 기독교 종파에서도 불리지 않는 잊혀져버린 찬송가다.

우리나라에선 고은 시인이 1970년 우리말로 작시(作詩)해 아름다운 선율로 불리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에 실린 이 노래 가사는 아름다운 시구절로 이어진다. 1970년께 은희와 양희은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국민요란 설명과 함께 소개했다. 그 뒤 정부의 4차 교육과정(1981~1987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렸다. 악보와 함께 작곡자는 특정이름 대신 '영국민요'로 돼있다. 웹페이지에도 작곡자는 영국민요 · 아일랜드민요(또는 스코트랜드민요)로, 작사자는 고은 또는 유경손으로 각기 다른 가사와 함께 부정확하게 돼있다. 음악전문가들은 이처럼 잘못된 기록은 바로잡아야한다는 견해다. '등대지기'는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애창곡으로도 유명하다. 2001년 9월엔 '등대지기'란 같은 제목의 책(저자 조창인, 출판사 밝은 세상)도 나왔다.

'아 목동아'는 가슴으로 연주하고 영혼으로 노래하는 듯 하는 뭉클한 느낌을 준다. 아일랜드민요 '대니 보이(Oh Danny Boy)'가 원곡으로 시골목동이 도시로 떠나는 사랑하는 소녀와 헤어지기 안타까워 부르는 이별의 노래이자 연가다. 북아일랜드 전통가락의 이 노래는 지역특유의 슬픈 멜로디가 녹아있는 세계적 명곡으로 꼽힌다.

1910년 잉글랜드 변호사이자 시인인 프레데릭 에드워드 웨드리(Frederick Edward Weatherly, 1848~1929년)가 노랫말을 쓰고 아일랜드출신의 유명 테너가수 존 맥코맥(John McComack)이 음반으로 취입, 대중적 인기곡이 됐다. 프레데릭 에드워드 웨드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자신의 형수가 '런던데리 에어(Londonderry Air)'란 곡을 처음 듣고 악보를 구해 보내줬다. 그는 악보를 보자 자신이 쓴 가사가 곡과 잘 어울리는 것을 알고 멜로디에 맞게 손질, 제목을 'Oh Danny Boy'로 붙여 1913년 출판했다. 이 노래는 그때부터 큰 인기를 얻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아 목동아'란 제목으로 번역돼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렸다.

이 노래는 아일랜드는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스,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가수와 노래그룹들이 취입했다. 우리나라에선 아이돌가수인 아이유와 소녀시대가 불렀다. 2차 세계대전 땐 빙 크로스비(Bing Crosby)의 음반으로도 리메이크돼 유명해졌다.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하는 어버이의 사랑노래이기도 하다. 아일랜드에선 이 노래가 장례식 때 전통적으로 불린다. 그곳 포크음악계에서의 인기도 그리 높지 않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제가(OST)도 유명하다. 말괄량이 수녀지망생 마리아(줄리 앤드류스)가 수도원장 추천으로 명문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폰 트랩 가족합창단의 실화를 내용으로 만든 브로드웨이뮤지컬을 1965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영화화한 것이다. 영화의 OST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음악이다. 대표적 OST는 '도레미'(Do-Re-Mi)송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적으로 여러 번안곡들이 나왔을 만큼 유명하고 친숙한 노래다.

아 목동아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산골짝마다 울려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은 가고
산골짝마다 눈이 덮여도
나 향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아 목동 아 목동아 내 사랑아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번안곡들 많아

국내 가수들이 우리말로 바꿔 불러 히트한 번안곡들도 많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펄 시스터즈 배인숙의 히트곡이다. 월드뮤직 팬에겐 그리 낯설지 않은 알랭 바리에(Alain Barriere)의 Un poete가 원곡이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로 나가는 맹인가수 이용복의 '어린 시절'은 동심의 세계를 나타낸 번안곡이다. Clint Holmes의 '플레이그라운드 인 마이 마인드(Playground In My Mind)'가 원곡이다. 1974년엔 '어린 시절'이란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다. 이용복이 직접 연기를 해 화제가 됐다. 이용복의 '1943년 3월 4일생'이란 노래도 번안곡이다. Lucio Dalla의 '4/3/1943'가 원곡으로 이용복이 1971년 산레모가요제에서 입상한 칸초네곡이다. 가사는 노래 주인공의 출생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상징적 내용이다.

'한국의 레이찰스'라 불리며 번안곡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이용복은 8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는 맹아학교에 입학, 점자악보를 읽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음악그룹 '캑터스'를 결성하는 의지력을 보였다. 그런 긍정적 삶이 결실을 맺어 고교 2학년 때인 1970년 가을 '검은 안경'으로 데뷔, 신진레코드에 1년 6개월간 전속가수로 있었다. 1971년 6월 이탈리아 산네모가요제에서 입상했던 1~3위곡('마음은 집시', '케세라',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을 번안가요로 불러 히트했다.

한경애의 '눈물 속에 피는 꽃'은 1960년대 국내에 들어온 외국 곡들 중 한창 히트하던 Johnny Dorelli의 '눈물 속에 피는 꽃'(L'immensita)이 원곡으로 음악다방DJ들 인기선곡 대상이었다. 국내 손꼽히는 칸초네의 명곡으로 1967년 제17회 산레모페스티벌에서 입상한 곡으로 Don Backy와 Johnny Dorelli가 불렀다. 작사는 Don Backy와 Mogol이, 작곡은 Deto Mariano가 했다.

박인희가 불러 크게 히트한 '방랑자'는 미남가수 Gianni Morandi의 'Vagabondo'를 번안한 노래다. 원곡은 달콤한 Morandi의 목소리가 쉽게 귀에 들어온다.

윤항기의 '노래하는 곳에'는 2001년 5월 잠자다 89세로 숨을 거둔 가수 Perry Como의 'I Believe In Music'이 원곡이다.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한 매너로 노래를 들려준 Perry Como의 전성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1955년 Rock and Roll 등장 전까지였다. 그

러나 이후에도 열정적 무대 활동, 음반발표로 1970년대에도 그의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1972년 음반에 실린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노래하는 곳에'로 번안돼 미국에서보다 더 유명해졌다.

서수남, 하청일이 불러 히트한 '팔도유람(I've Been Everywhere)'도 번안곡이다.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가사를 저렇게 빨리 발음하면서도 박자를 적절히 짧게 또는 길게 잘라서 노래할까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1962년 발표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의문이 풀린다. Travelling Song이란 독특한 장르를 개척한 Hank Snow는 캐나다출신의 지방아티스트이다. 12살 때부터 집을 나와 떠돌면서 배운 음악경력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 됐다. 그는 1999년 12월 밀레니엄을 눈앞에 두고 85세로 타계했다.

조영남이 부른 '고향의 푸른 잔디(Green Green Grass Of Home)'는 톰 존스가 히트시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다. 오랜 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고향을 그리는 광경을 묘사한 노래다. 우리나라에선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 여러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낸 조영남이 개사해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김추자의 '즐거운 일요일'은 영국출신 팝가수 다니엘 분의 'Beautiful Sunday'가 원곡이다. 1972년 곡으로 싱글차트 15위까지 올랐던 이 노래는 최근 기아자동차 경차(비스토)에 광고에도 쓰였다. 외국의 남자가 교통경찰에게 구애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온다.

심수봉의 '백만 송이 장미(Million Allyh Roz)'는 러시아번안곡이다. 원곡은 알라 뿌가체바의 '마리나가 준 인생'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훗날 세상에 홀로 설 때를 위해 뭔가 말해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선 심수봉이 또 다른 내용으로 개사해 불러 알려졌다.

현인이 부른 '베사메무쵸'(Besame Mucho)는 멕시코 노래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요다. 4분의 4박자 룸바멜로디로 흥겹고 경쾌해 추억의 노래 같지 않다. 이 노래는 스페인 지배를 받다 독립한 멕시코의 여가수가 리라꽃(라일락)에 얽힌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베사메무쵸'란 제목으로 부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여류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가수인 콘수엘로 벨라즈케즈(Consuelo Velázquez, 1924~2005년)가 16세 때인 1940년에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50여국에 퍼져나가 대히트곡이 됐다. '베사메무쵸'는 영어로 'kiss me much(키스를 많이 해주세요)'란 뜻의 스페인 말이다. 그럼에도 정작 작곡자는 "25세 이후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 웃음을 짓게 한다. 이 노래의 최초 작곡가는 스페인사람 Enrique Granados(1867~1916년)다.

'베사메무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애창곡으로도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시절 이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 노래는 여가수 현미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가 가수될 수 있게 해준 행운의 곡이다. 1957년 서울 용산 미8군 클럽 무대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다 우연히 이 노래를 불러 가수가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베사메무쵸(Besame Mucho)

Besame be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ultima Ves
Besame be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es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me en tus ojos
Estar junto A ti
Piensa que tal ves manana yo ya estare lejos
Muy lejos de aqui
Besame be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ultima ves
Besame besame mucho
Que tengo miedo pederte, perderte despues

여름철이면 애창되는 '해변으로 가요'도 번안곡이다. 4분의 4박자, 고고풍의 이 노래는 남성그룹 키보이스가 불러 크게 히트했다. 대중가요악보집엔 김희갑 작사 · 작곡으로 돼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원래는 일본 곡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린 건 1968년 서울시민회관(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그룹사운드페스티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키보이스와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그룹사운드팀들이 5일간 공연을 펼쳤다. 이들 가운데는 재일교포 이철(일본명 아베 데스)씨를 포함한 8명의 일본 그룹사운드 '더 아스트로 제트'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 한국에선 일본노래를 부를 수 없게 돼있었다. '더 아스트로 제트'의 리더 이철 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작사 · 작곡한 '하마베에이꼬'(浜邊へ 行こう)를 국제관계평론가인 형(이건)에게 한국말로 가사번역을 맡겼다. 이건 씨는 이를 다시 친분 있는 소설가 이호철 씨에게 가사번역을 부탁,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불린 노래가 바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로 나가는 '해변으로 가요'다.

인기절정의 남성보컬그룹 키보이스가 '해변으로 가요'를 부른 건 그 이듬해인 1969년부터다. 시민회관공연이 끝난 뒤 키보이스가 이철 씨에게 "그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했고, 이 씨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불러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 씨는 '주간조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음악가로서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전에 이 노래의 작사 · 작곡자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 1970년 유니버설레코드사가 제작한 앨범 '보칼 NO.1 키보이스 특선 2집'엔 작사 · 작곡자 표시 없이 '키보이스 가요그룹'의 노래라고만 돼있다. 1976년엔 키보이스, 1983년 4월엔 김희갑 등이 나온다. 하지만 이 노래 원작자 이 씨가 소송으로 저작권을 되찾으면서 일본노래란 사실이 밝혀졌다.

노래가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곡목과 같은 드라마도 나왔다. SBS-TV가 2005년 7월 30일~9월 11일 '해변으로 가요'를 방영, 인기를 모았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으로 나가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도 유명한 번안가요다. 차중락(1942~1968년)이 불러 히트한 이 노래는 지난날 젊을 때 불태웠던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 인기가 꾸준하다. 4분의 4박자, 슬로우 록 리듬인 이 노래의 작사가는 강찬호. 미국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를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란 제목으로 부른 것이다. 원곡은 1962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발표한 'Good Luck Charm / Anything That's Part of You'란 싱글음반에 담겨있다. 작곡가는 돈 로버트손(Don Robertson).

차중락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만해도 무명이었다. 우리나라 최초 보컬밴드라 할 수 있는 키보이스의 리드보컬로 가요계엔 1963년 데뷔했다. 엘비스 프레슬리, 폴 앵카의 모창으로 미8군 무대 등지에서 인기를 얻었다. 1966년 11월 신세기레코드를 통해 발표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맨 처음 부산서 돌풍을 일으킨 뒤 전국을 흔들었다. 차중락의 감작스러운 요절과 슬픈 사연도 인기를 끄는데 한몫했다. 세상을 떠난 계절이 노랫말 속의 낙엽 지는 가을이어서 팬들이 많이 찾았다. 차중락은 1942년 서울서 부친이 인쇄소를 경영했던 집안의 8남3녀 중 셋째아들로 태어나 1968년 11월 10일 27세의 나이에 뇌막염으로 숨졌다.

번안곡 '내 인생은 나의 것'은 제목처럼 노랫말 흐름도 사뭇 독립적 · 주관적이다. 바깥사람들 얘기를 듣기보다 줏대를 갖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이 노래는 1982년 민해경과 김현준이 듀엣으로 처음 취입했다. 인기절정의 음악프로그램이었던 KBS 2TV '가요 톱10'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며 인기몰이를 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명분아래 5공 정부가 금지곡으로 묶어버렸다.

필자 소개

마산 중 · 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와 1979년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특히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에 등록(865호), 〈이별 없는 마산항〉 등을 취입했다. '기자 가수'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